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

포도원 품꾼의 비유

마태복음 20장은 품꾼들이 포도원에 들어가는 비유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20: 1-2)

하루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또 제 삼 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놓고 쉴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20:3)

주인은 아침 6시에 장터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일하러 보냈습니다. 그런데 삼 시, 즉 9시경에 또 나가보니 장터에 놓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도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5절에 보면 “제 육 시와 제 구 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즉 정오와 오후 3시에도 마찬가지로 고용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말씀입니다.

“제 십일 시에도 나가보니 쉴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놓고 여기 쉴노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20:6-7)

오후 5시에도 이와 같이 놓고 서 있는 사람들을 본 포도원 주인은 그들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저물때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삯을 주라 하니 제 십일 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20:8-16)

마태복음 19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이와 연결되는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9:27에는 베드로가 주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사오니”라고 말했을 때 주님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포도원에서 일할 때, 즉 그분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포도원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품꾼들은 스스로 원해서 포도원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주인이 보냈기 때문에 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주인과 이야기한 대로 품삯을 받았습니다.

가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천국에 들어갑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전생애를 통해 예수님을 섬기고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언뜻 보기에 매우 불공평해 보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주시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죽기 전,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삶 전체를 통해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분을 섬기는 기쁨을 맛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은 제 십일 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도, 즉 삶의 마지막 때에 주께로 돌이켜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영생의 축복에 관한 한 우리와 똑같은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사실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함에 대해 주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시간이든 열두 시간이든 간에 맡기신 일에 대한 신실함을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빌리 그레함 목사 같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이룩한 엄청난 사역의 열매들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빌리 그레함 목사가 받게 될 상급과 같은, 또는 더 큰 영광을 얻게 될 사람들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 한 번도 관심을 끌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부르신 일에 신실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밀실에서 중보기도를 한 사람들도 포함이 됩니다. 주님을 섬김에 있어 참으로 신실하게,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섬긴 이들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사실상 돈보이고 남들 앞에 자주 드러나는 사역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생각보다 작은 상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이미 이 땅에서, 그들이 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대가가 즉시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은 그 자체로서 이미 충분한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주님이 선하게 행하신 것에 대해 사람들은 못된 마음으로 불평하고 감사치 않습니다.

십자가의 수난과 죽음에 대한 세번째 예언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20:17)

분명코 가시는 길에 큰 무리가 따랐을 것이지만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박게 하리니 제 삼 일에 살아나리라”(20:18-19)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여행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완결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거의 삼 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정확히 아신 예수님은 그곳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셨을 때부터 제자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열둘 중 하나인 유다에 의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신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줌으로써 이방인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박히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미리 예언하신 것만 보아도 채찍질에는 많은 영적인 의미가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로마병정의 채찍질은 참으로 고통스런 것이었습니다. 기둥에 묶은 후에 등은 쪽 퍼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채찍은 가죽에 사금과리나 납 등이 박혀 있어서 등에 닿았다가 떨어질 때 살점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채찍질은 로마인들이 했던 방식의 독한 고문이었습니다. 이 고문의 목적은 채찍질당하는 사람이 로마에 대해 지은 잘못을 자백하게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자백을 하는 것에 따라 채찍질하는 사람은 점점 그 강도를 낮추어 줍니다. 그러나 채찍질당하는 사람이 지은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채찍질은 점점 그 강도가 높아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이사야 53:7). 이 말씀은 예수님께도 채찍의 강도가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떤 잘못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려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했으며 왜 고난을 당해야 했는지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별 필요도 없이 고난당하도록 허락하셨습니까? 고난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가치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분명하게 말했듯이 주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오는 병자들을 주님께서 모두 고쳐주셨는데, 이러한 사실들은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벧전 2:24)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죄를 위해서 몸이 깨어지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사건을 기억하며 행하는 애찬을 잘못 행하고 있음에 대해 경책했습니다. 그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가지는 가벼운 태도와 좋지 못한 습관에 대해 질책했습니다. 단지 배를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이 성찬을 대했던 사람들에게 이 일이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성찬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부서진(broken-KJV) 내 몸이니”라고 말씀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받으실 채찍질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뼈는 부러뜨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러지는 희생제물은 흠이 없는 것, 즉 부러진 것이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또한 시편의 예언도 그분의 뼈가 보호를 받아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부서진 내 몸이니 할 때에 내 몸이란 떡을 떼듯 떼어진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받으신 채찍질로 인해 그분의 몸은 처참히 찢어졌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채찍질은 너무도 혹독하여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형벌에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채찍질 그 자체를 견뎌내지 못하고 피를 흘린 채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 채찍질로 몹시 지치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채찍질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채찍질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찢어진 그분의 몸을 기억하는 성찬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치유와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분이 준비하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고 경책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니…” 영적인 의미로는 누구나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단지 영적인 것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8장은 이것이 육체적인 치유에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육체적 문제까지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찬식에는 육체의 고침을 위한 예배가 언제나 함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조각난 빵을 집어서 가지고 갈 때 우리를 위해 찢기셨던 그분의 등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그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진정한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치유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몸에 그분의 손길이 닿고 있음을 얼마나 확실하게 느끼고 있으며, 우리의 약함을 고치시기 위해 그분이 당하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치유의 역사를 얼마나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 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20:20)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모든 어머니들은 자신의 아들들에 대해 최고의 수준을 기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20:21-22)

이 두 아들들은 어머니를 앞세워 예수께 구하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고 했을 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할 수 있나이다”라고 말했다는 사실로 봐서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박힐 것과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20:23-24)

예수님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했을 때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목이 잘려 죽임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한 명입니다.

종의 도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유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20:25-27)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데 요구되는 종의 도에 관해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원칙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비극입니다. 우리가 전임 사역을 하게 될 때에 종종 사람들이 우리의 사역에 대해 대우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권세를 부리고자 하는 욕심이 있고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려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권세를 휘두르려고 하며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주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70년대에 미국에서 유행한 풍조 중 가장 회한했던 운동 하나는 소위 ‘목양교리’(Shepherding doctrine)라 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고 하나님과 양무리를 맡은 목자(Shepherd)로 자처하면서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스스로 권세를 부리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대언자로 내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 차를 사는 문제에 관해서까지 하나님께 나아가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장로나 소위 목자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크고도 무거운 속박의 교리이며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과는 정반대 되는 원칙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높아지기를 원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노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대우를 받고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주기 위해서, 즉 섬기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우리가 어떻게 대우받기를 기대하고 섬김을 받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예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좇더라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서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좇으니라”(20:29-34)

예수님이 예리고에서 떠나가실 때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소란스러워지자 길가에 앉았던 두 소경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고통받고 상처입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멀지 않은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두 소경은 이 때를 그들 생애에 단 한 번 주어지는 절호의 기회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볼 수는 없었지만 무리들이 가는 방향을 향해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주위에 몰려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으려는 두 소경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개의치 않고 결사적으로, 더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은 이 소리를 들으시고 멈추어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인도되어 온 소경들에게 예수님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눈을 만져 고쳐주셨습니다. 눈을 뜬 그들은 무리와 합세하여 예루살렘까지 따라갔습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아주 무거웠을 것입니다. 배반과 능욕과 채찍질을 당하며 십자가에 못박힐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목사들은 종종 그들의 사역이 확장되어 가면 사람들과의 개인적인 접촉을 제한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개인적인 필요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들의 사역이 섬기는 주인보다 더 커져버린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주인이요 내가 돌보는 양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일일이 돌볼 만한 시간이 없어졌다면 자신의 목회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 두 소경은 영적인 장님들, 즉 죄인들이 가져야 할 아름다운 태도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는 장애가 있으나 새로운 삶을 소망하며 끈질기게 예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